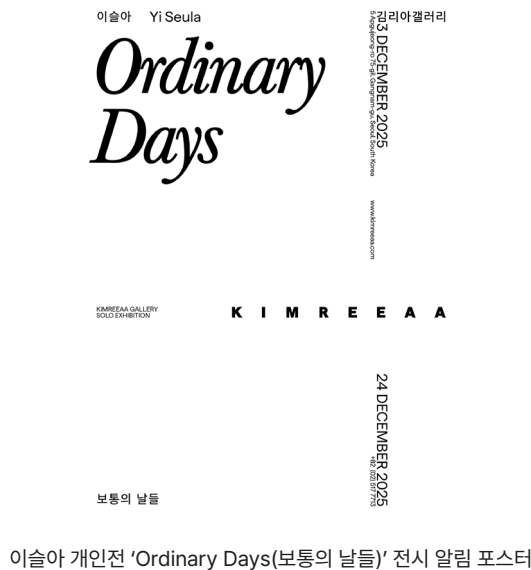


## 조용한 일상, 내 하루를 지탱하는 작은 것들 이슬아 개인전 'Ordinary Days' (보통의 날들) 김리아갤러리에서 개최

- 김리아갤러리,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슬아 개인전 《Ordinary Days》 개최
-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보통의 날들'을 기록한 그의 회화는, 존재가 머무는 시간과 그 감각을 섬세하게 탐구
- 도시의 속도와 효율을 벗어나, 사소한 하루의 풍경이 지닌 따뜻함을 담아낸 신작 28여 점 공개



김리아갤러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전시로 2025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이슬아 개인전 'Ordinary Days' (보통의 날들)을 개최한다. 이슬아는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작가로, 평범한 하루 속 작고 사소한 순간들을 포착해 회화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는 하루를 이어가는 힘과 가치를 탐구하며, 관람객이 쉽게 지나치는 사소한 경험들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자리다. 혼란스러운 사회와 개인적 일상 속에서도 오늘과 내일을 이어주는 삶의 연속성을 돌아보도록 안내한다.

작가는 일상 속에서 발견한 작은 순간들—푸른 잎, 차 한잔의 여유, 비가 온 뒤에 갠 하늘—을 화면에 담아 하루를 이어가는 섬세한 감각과 온기를 표현했다. 'Ordinary Days' (보통의 날들)에서 선보이는 작품들은 단순한 일상의 기록을 넘어, 관람객이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사소한 경험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도록 한다. 이슬아의 회화는 현대 사회에서 속도와 효율이 강조되는 일상을 천천히 되돌아보게 하며, 그 속에서 느껴지는 작은 감각과 경험이 삶을 유지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힘을 보여준다.

특히 월별 연작에서는 작가가 한 해 동안 마주한 풍경을 계절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록했다. 작업실 주변에서 바라본 나무의 색, 우연히 스친 빛, 계절마다 달라지는 공기의 결 등이 작품 속 장면으로 구현되어, 관람객은 특정 달을 떠올리며 한 해의 흐름과 일상의 리듬을 체감할 수 있다. 이렇게 모인 작은 순간들은 연속성을 이루며, 작가의 시선과 하루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준다. 더하여, 이번 전시와 함께 캘린더 형식으로 제작된 도록을 통해 이러한 연작의 흐름을 한눈에 경험할 수 있게 한다.

한 해의 마지막 달, 이번 전시는 제목 그대로 보통의 날들이 평범하지만, 작은 순간들과 기적들이 모여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관람객은 이슬아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며, 달력 속 반복되는 숫자들처럼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소중함과 특별함을 느끼고,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삶의 의미와 연결성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최:** 김리아갤러리

**위치:** 김리아갤러리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5 (청담동 100-31)

KIMREEAA GALLERY | Gangnam-gu Apgujeong-ro 75gil 5, Seoul, Korea

**INSTAGRAM:** [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https://www.instagram.com/kimreeaagallery)

**WEB:** [www.kimreeaa.com](http://www.kimreeaa.com)



이슬아(b.1990)는 회화를 통해 도시 속 사람과 형태의 관계를 기록한다. 그녀의 작업은 개인적 성찰, 스쳐 지나가는 순간, 도시의 단편적인 장면들을 결합하여 익숙하면서도 미묘하게 낯선 공간을 만들어낸다. 현실보다 더욱 “도시적”으로 느껴지는 이러한 풍경을 통해, 작가는 도시 환경을 구성하는 구조와 보이지 않는 규칙,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되는 관계들을 탐구하며 사람·형태·기억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지를 추적한다.

그녀의 작업은 도시를 걷는 것에서 시작된다. 선과 면, 직사각형의 밀집한 패턴을 관찰하며, 일상적인 동선부터 예상치 못한 순간까지 사람들이 이 환경을 어떻게 통과하는지에 매료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하나의 생태계처럼 도시를 살아 있게 만든다. 이슬아는 이러한 관찰을 캔버스에 옮김으로써 일상의 풍경, 길, 건물들을 도시의 리듬과 빛, 고요한 소리를 담은 층위 깊은 풍경으로 재구성한다.

Yi Seula docum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people and forms within the city through her paintings. Her works combine personal reflections, fleeting encounters, and glimpses of urban life to construct spaces that feel both familiar and subtly unfamiliar—cities that seem more “urban” than reality itself. Through these compositions, she explores the structures, invisible rules, and relationships that shape our urban environment, tracing how humans, forms, and memories are interconnected.

Her practice begins with walks through the city, observing the dense patterns of lines, planes, and rectangular spaces. She is fascinated by how individuals navigate this environment, from mundane routines to unexpected moments, and how these interactions animate the city like an ecosystem. By translating these observations onto canvas, Yi Seula transforms everyday sights, paths, and buildings into layered landscapes that capture the rhythm, light, and quiet sounds of urban life.





Yi Seula  
Seoul (2025)

Acrylic on canvas  
193.9×130.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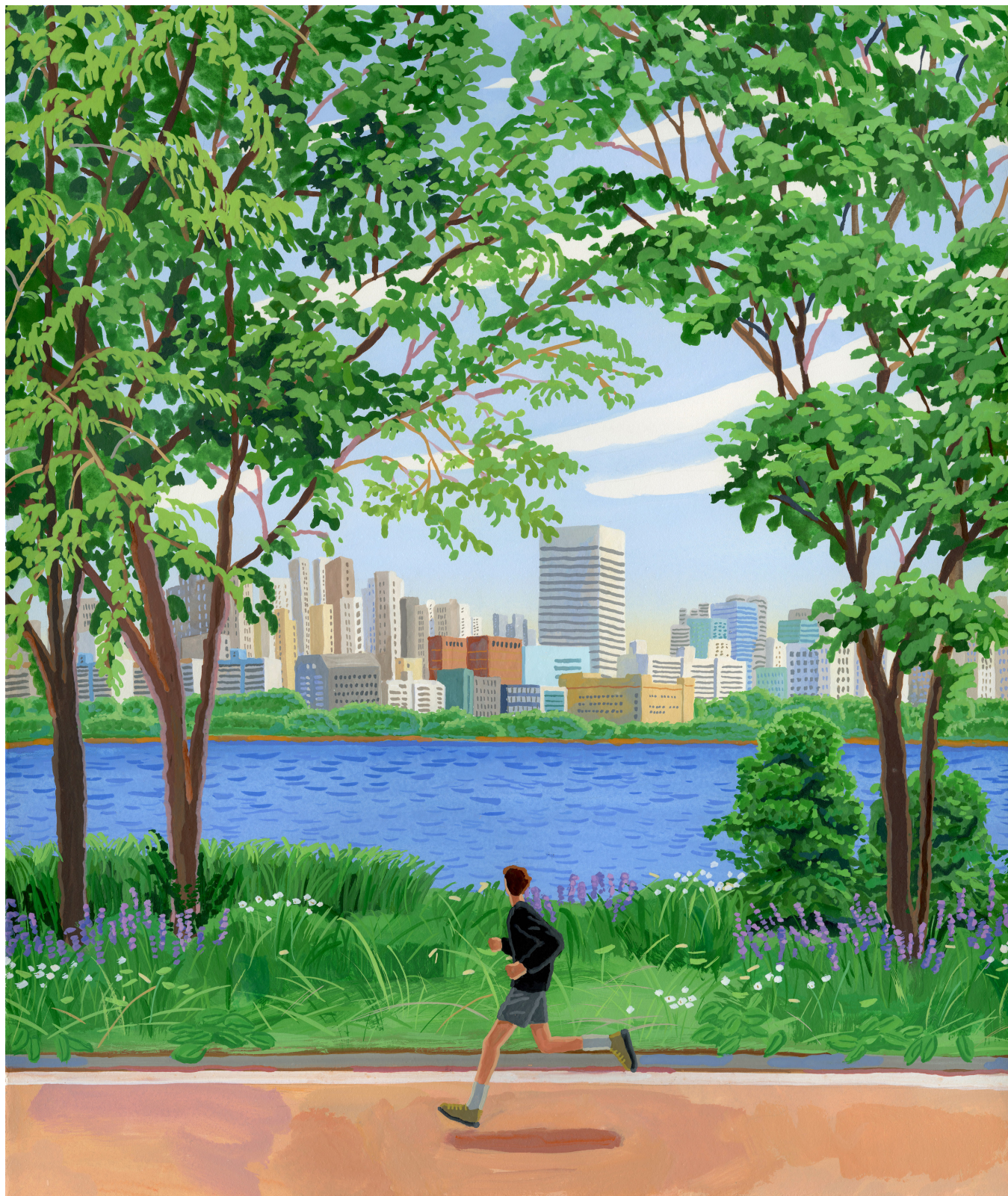




Yi Seula  
*Too much caffeine* (2024)

Oil on canvas  
130×91cm





Yi Seula  
Running (2025)

Watercolor and gouache on Arches  
45.5×37.9cm





Yi Seula  
An ordinary day (2025)

Watercolor and gouache on Arches  
53×45.5cm





Yi Seula  
Going home (2025)

Watercolor and gouache on Arches  
40.9×31.8cm